

당뇨에 이환된 재발성 급성 신우신염 환자에서 발생한 신피막하혈종 1예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세희 · 황원민 · 구훈섭 · 김완호 · 정인범 · 유기현 · 이희정 · 윤성로 · 송현용

서 론 : 신피막하 혈종은 외상 후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드물게 양성 또는 악성 종양, 동정맥 기형, 동맥염, 만성 신우신염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급성 신우신염에 동반된 신피막하 혈종은 매우 드문 질환이며 국내에 최 등에 의해 2예, 김 등에 의해 1예 보고된 적이 있다. 본 증례는 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발한 급성 신우신염 환자에서 발생한 신피막하 혈종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30세의 여자 환자로 내원 전일부터 오한, 열감, 오른쪽 옆구리 통증, 오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두 달전 당뇨 진단 받고 현재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급성 신우신염 있어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받은 병력 있었다. 이학적 소견상 39℃의 발열이었고, 흉부 및 복부 진찰소견은 정상이었으며 오른쪽 옆구리에는 압통이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는 24,230/m², CRP 18.8 mg/dL로 증가해 있었으며 소변 검사상 백혈구, 적혈구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소변 배양 검사에서 E. coli가 동정되었다. 두 달 동안 세 차례 재발한 급성 신우신염으로 항생제 치료 시작하면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오른쪽 신장에 3.5 cm의 신피막하 혈종이 발견되었으며, 신장 전산화 단층촬영상 동일한 소견이었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후 발열이나 옆구리 통증의 증상은 호전되었다. 항생제 치료 2주 후 시행한 초음파 추적 검사에서 혈종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환자는 퇴원하여 현재까지 신우신염의 재발은 없는 상태이다.

결 론 : 최근 당뇨 진단 받고 급성 재발성 신우신염이 반복되는 젊은 여자 환자에서 신피막하 혈종을 발견하였고, 항생제 치료 후 자발적인 소실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